

 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2019년 10월 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구제역방역과 과 장 김대균(044-201-2531), 사무관 정승교(2532)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 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사무관 황성철(2555) / 제공일: 9월 30일(총 5매)		



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

- 위험시기(2019.10월~2020.2월),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역량 결집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(5개월)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,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 추진
 -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위한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총력 방역활동 전개
 - (구제역)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 일제접종과 항체검사 확대, 방역 취약농가* 점검 강화,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추진
 - * 과거 발생, 백신 미흡, 밀집단지, 감염항체(NSP) 검출 등 173개소 대상
 - (조류인플루엔자) 철새 예찰 확대, 농가별 방역관리카드 운영*, 위험 농가 사육제한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 대응
 - * 전체 가금농가(4,843호) 대상, 농가별 방역 취약 요소와 점검 이력 관리
- ◆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방역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
 - 축산농가는 울타리·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정비, 출입 인원·차량 통제,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소독 강조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구제역·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(5개월)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,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.

○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, 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.

1. 구제역 특별방역대책

□ 구제역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 접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밀집단지 등 취약대상 집중 점검,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.

○ (백신 접종) 전국 소·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('19.11월, '20.4월) 일제 접종하고, 사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(약 6개월)에 대해서는 과거 발생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.

- 백신 접종 사후관리를 위해 소와 돼지에 대한 백신 항체 검사를 확대 실시*하는 한편,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백신 비축량을 확대(평소 2개월분→3~4개월분)한다.

* [소] 50두 이상 전업농가(21천호) 전체에 대해 연 1회 항체검사(현재는 전체 소 농가(107천호)의 약 2.2% 수준 검사),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접종 지원

* [돼지] 농가별 연 3회(농장 2, 도축장 1) → 연 4회(농장 2, 도축장 2)

○ (취약대상 점검) 과거 발생 농가, 백신 미흡 농가, 밀집사육 단지 등 **방역 취약대상 173개소***를 대상으로 **3중 점검**** 체계를 운영하여 미흡사항을 즉시 개선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.

* 방역 취약농가 121호 및 밀집사육단지 52개소

** (1차 점검) 농가 자체 점검 → (2차) 지자체 → (3차) 농식품부·검역본부 점검(월 1회)

- 또한,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해당 출입 차량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와 소독설비 점검을 실시한다.

○ (신형 진단키트 공급) 구제역 **혈청형까지 확인**이 가능한 신형 진단키트*의 **현장 공급을 확대**(700개→1,500)하고,

* (기존) 구제역 감염 여부만 확인 → (신형) 혈청형 3종(O, A, Asia 1) 감별 진단 가능

-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게 적합한 백신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백신 항혈청*을 사전 확보해 비축하는 등 **유사 시 대비도 철저히 할 계획**이다.

* 항혈청 : 백신 항체를 포함하는 우제류 가축의 혈청을 의미하며, 현재 접종중인 상시백신(영국, 러시아, 아르헨티나) 3종에 대한 항혈청은 기 확보

2.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

□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**철새 예찰을 확대**하고 가금 농가별 방역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, 위험농가 대상 사육제한(휴지기)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한다.

○ (철새 예찰) 전국 철새도래지(96개소)에 대한 예찰을 **환경부·지자체와 협력**하여 실시하고 검사물량을 지난 동절기 대비 **8% 확대**(22천건→23, 10월~'20.3월)한다.

- 아울러, **민관 합동* 철새 정보망**을 구축하여 철새 도래 정보와 국내 이동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,

* 농식품부, 검역본부, 환경부, 국립환경과학원, 국립생물자원관, 대학교수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

- '**철새정보 알림시스템**'을 운영하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가금농가 등에 송부*하는 등 철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.

*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(H5·H7형) 검출 시 문자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(SNS)를 통해 가금농가와 생산자단체에게 정보 제공

- 또한, 야생조류에서 **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** 항원 검출 즉시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, 검출지점 반경 10km를 방역 지역(야생조수류 예찰지역)으로 설정하여 21일 간 예찰과 이동 제한 등 **선제적 방역조치**를 통해 농가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.

○ (농가 방역관리) 가금농가 전체(전업농 4,843호)를 대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**방역관리카드**를 마련하여 **농가별 취약요소*와 현장 점검 결과 이력관리**를 실시한다.

* 취약요소 : 과거 발생, 임대농가, 밀집사육단지, 철새도래지 인근 여부 등

- 특히, **방역 취약농가*(473호)**에 대해서는 **농식품부에서 월 1회 점검** 등 별도 방역관리를 실시하며,

* 오리농가 중 방역 미흡농가, 산란계 밀집사육단지(11개소), 위험지역 소재 임대농가

-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진출입로에 **통제초소**를 설치·운영하고 전통시장 일제 휴업·소독의 날을 **확대 운영**(월 1회→2회, 발생 시 매주)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.

○ (사육제한·소독)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반복 발생, 철새도래지 인근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육제한(휴지기)을 실시할 계획이다.

- 또한, 소독 강화를 위해 농협과 협력하여 전국 오리농가와 밀집사육단지를 대상으로 생석회를 지원한다.

○ (발생 시) 가금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전국 일시 이동중지, 발생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, 발생 시·군 7일간 이동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.

- 또한, 방역지역 내(반경 10km 이내) 농가에 대해서는 생석회 도포를 강화하고 축사에 발판소독조를 2중으로 설치하며, 출입자는 방역복으로 반드시 환복 후 출입하도록 하는 등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.

□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, 구제역,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하였다.

○ 축산농가는 울타리·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, 농가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였다.

○ 아울러, 가축전염병 의심사례*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* (구제역) 거품섞인 침흘림, 콧구멍 주변의 궤양, 유두 또는 발굽 사이 수포 등

* (조류인플루엔자)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, 사료섭취 급감 등

* (아프리카돼지열병) 고열 및 식욕부진, 혈변, 피부 점상출혈, 청색증, 폐사 등

※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: (국번없이) ☎ 1588 - 9060 / 4060